

LED 광소자 기술개발 MOU

지식경제부는 201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LED(발광다이오드) 광소자 기술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지경부는 5월30일 산·학·관 관계자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LED조명 생태계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한다.

체결식에는 한국광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 삼성전자, LG이노텍, 서울반도체, 금호전기, 더리즈, 필룩스, QMC, LED산업포럼, 한국광산업진흥회, LED보급협회, 서울대, 한양대가 참석한다.

3년 이내에 세계 1등 광소자 기술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LED가 우리나라의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렵다는 인식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20억원과 민자 42억원 등 1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랜드컨소시엄 수행기관은 인력 파견과 인프라 공동활용에 적극 협력하고, LED 광소자 생산기업들은 그랜드컨소시엄 신규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2/05/30>